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 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홍은희<sup>1</sup>, 서은주<sup>2\*</sup>

<sup>1</sup>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sup>2</sup>배재대학교 교수

## Effects of Nursing Competency Development Global Program o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Co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Eunhee Hong<sup>1</sup>, Eunju Seo<sup>2\*</sup>

<sup>1</sup>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up>2</sup>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에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전과 후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을 측정된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SPSS/WIN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은 총 610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미국간호사 되기, 간호사의 미래에 대하여 강의식과 Zoom을 통한 미국 교수와 미국 간호사와의 토론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중재 결과 국제보건간호역량( $t=-6.72, p<.001$ ), 셀프리더십( $t=-3.30, p=.002$ ), 핵심역량( $t=-4.70, p<.001$ )이 모두 프로그램 적용 후에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적 리더로서의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 간호대학생, 프로그램 중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nursing competency development global program(NCDGP) o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co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53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NCDGP program.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NCDGP consists of three section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included lecture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becoming a nurse in United state, and the future of nurses, as well as discussions with professors and nurses in United state via Zoom. As a result of the study, global nursing competency( $t=-6.72, p<.001$ ), self-leadership( $t=-3.30, p=.002$ ), and core competency( $t=-4.70, p<.001$ ) increas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hoped that it will help to improve nursing competency and educate as an global leader.

**Key Words** :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Core competency, Nursing student, Program interven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ju Seo (eunjuseo@pcu.ac.kr)

Received December 8, 2022.

Accepted December 24, 2022

Revised December 21,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많은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사회 발전을 끌어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들은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며, 교육과정 내에 공통적인 일반 교육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교육을 모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대학은 학문 간의 융·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시도하며 능력을 함양하는 목표 중심의 교육이나 교양과 전공, 그리고 교과 외 활동을 통합하려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1].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인사관리에 역량모델을 활용하며 인재 확보를 위한 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 기법들이 적용되면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들은 지식과 학문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에 대해 고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찰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다[2].

지식기반 경제가 대두되면서 조직이라는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생애 기간 동안 모든 직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직업 능력을 키워내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직업 능력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직종이나 직위에 무관하게 대부분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3].

국제보건역량은 인류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연구와 실무영역에서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적인 건강 쟁점, 결정적인 인자를 파악하고 보건의료분야와 타 학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개인 및 인구 집단 기반의 예방적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4].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2015년 제7차 UN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인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에이즈와 말라리아, 모자보건 증진, 아동 사망률 감소,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간호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5].

현재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간호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각 간호대학에서 국제보건간호 관련 교육과정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6]. 또한 교육과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간호대학생 스스로 국제보건간호역량에 대한 동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7].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 사고방식,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업무 수행 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뜻한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도 스스로 정하며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비판을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8, 9]. 간호사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의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내에서만 환자를 돌보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간호 대상자를 간호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서의 간호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 생소한 환경과 다양하게 다가올 상황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간호 진단과 의사 행위 결정을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7].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은 학습 영역에서의 능력이나 역량을 말하며, 이러한 핵심역량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향상할 수 있다[10]. 핵심역량은 현재뿐 아니라 졸업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대학교육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이다[11]. 대학들은 외부 평가를 받을 때 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요구받게 되어, 대학마다 교육목표에 따른 학생의 핵심역량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통적 문화 포용력, 창의적 전문성, 헌신적 감수성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소통적 문화 포용력의 하부 항목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인문 소양이고, 창의적 전문성의 하부 항목은 지식기술 통합, 간호 융합, 문제 해결이다. 헌신적 감수성의 하부 항목은 직업의식, 자기관리, 간호 서비스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영역에 해당하는 병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일차 보건의료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국제보건간호와 관련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6]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제1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는 국제보건간호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제2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는 셀프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다.

제3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는 핵심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에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비교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반복 측정 일원 분산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을 결정하였다[12]. 그 결과 최소 표본수는 44명이었으며, 이에 대상자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55명을 선정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5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 2.3 연구 도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것으로 작성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일반적 특성 5문항, 국제보건간호역량 30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 핵심역량 24문항으로 총 77문항이다.

#### 2.3.1 국제보건간호역량

국제보건역량은 GHEC & AFMC(Global Health

Education Consortium Committee & Association of Faculties of Medicine of Canada Research Group)가 제시한 국제보건역량 도구를 Wilson 등[13]이 간호사를 위해 국제보건간호역량(Global Health Competencies for Nurses)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동희[7]가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국제사회 질병 부담 3문항(1-3), 이민, 이동, 여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6문항(4-9), 건강의 사회환경적 결정인자 5문항(10-14), 건강과 보건 의료의 세계화 6문항(15-20),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보건 의료 7문항(21-27), 인권과 개발 자원으로서의 건강 3문항(28-30)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국제보건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동희[7]의 연구에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anz[14]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김한성[15]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 기대 3문항(1, 2, 3), 리허설 3문항(4, 5, 6), 목표 설정 3문항(7, 8, 9), 자기보상 3문항(10, 11, 12), 자기비판 3문항(13, 14, 15), 건설적 사고 3문항(16, 17, 18)으로 6개 영역 각 3문항씩 총 18문항이다. 측정 기준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으로 된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김한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2.3.3 핵심역량

핵심역량은 SWCN-3C(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3Core)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WCN-3C 핵심역량은 소통적 문화 포용력, 창의적 전문성, 헌신적 감수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소통적 문화 포용력의 하부 항목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인문 소양으로 구성되며, 창의적 전문성의 하부 항목은 지식기술 통합, 상호 융합, 문제 해결이다. 헌신적 감수성의 하부 항목은 직업의식, 자기관리, 간호 서비스이다. 간호역량개발 글

로별 특강프로그램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소통적 문화 포용력 중 의사소통(1-7)과 인문 소양(8-15), 창의적 전문성 중 간호 서비스(16-24)를 측정한 점수이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5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1차 설문지는 네이버 온라인 폼을 이용하여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진행 2주 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설문지는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직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 2.5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진행 절차

##### 2.5.1 실험 전 준비 단계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해 2022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후, 취합된 요구도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미국 주립대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K 교수와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10명을 선정하여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확인을 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K 교수와 미국 간호대학생들이 줄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2.5.2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 적용단계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은 3개의 섹션(Session)으로 3일간 진행이 되었다. 각 섹션마다 미국 주립대 간호학과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진행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으로, 다

Table 1. NCDGP contents

Contents	Time (minute)	How to proceed
<b>Session 1</b>		
Introduction	50	Lecture
American Nurs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health care professional	50	Lecture
Curriculum of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 in USA	50	Lecture
BSN Students Life / ZOOM Meeting with CSUSB nursing student(s)	20	ZOOM
Q&A	10	Discussion
<b>Session 2</b>		
To Become American Nurses	100	Lecture
How to Prepare NCLEX-RN examination	50	Lecture
How CSUSB nursing student prepare NCLEX-RN exam/ ZOOM meeting with nursing student(s)	50	ZOOM
Q&A	20	Discussion
<b>Session 3</b>		
NCLEX-RN examination style	50	Lecture
ZOOM Meeting with CSUSB Nursing Students or Alumni	50	ZOOM
The Future of Nursing	100	Lecture/ Discussion
Q&A	10	Discussion
Conclusion	10	Lecture
Total	610	

NCDGP: Nursing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CSUSB: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BS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NCLEX-RN: National Council Licens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미국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미국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 및 현재 미국 주립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과 줌(Zoom)을 통한 화상 미팅(meeting)을 통해 미국 간호대학생의 생활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간호사 되기’로, 미국 간호사 시험인 National Council Licens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Computerized Adaptive Testing(NCLEX-RN) 준비 방법 및 미국 간호대학생은 NCLEX-RN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간호사의 미래’로, 향후 국제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 간호사들과 만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 방법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core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3)

Variables	Categories	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Core competency	
			M±SD	t or F (ρ)	M±SD	t or F (ρ)	M±SD	t or F (ρ)
Grade	1	18(34.0)	2.52±0.63	1.66(.189)	3.84±0.56	0.90(.447)	3.91±0.63	0.97(.416)
	2	10(18.9)	2.83±0.82		3.73±0.61		3.67±0.67	
	3	17(32.2)	2.93±0.56		4.03±0.51		4.11±0.55	
	4	8(15.1)	2.98±0.49		3.67±0.80		3.90±0.90	
GPA	<3.5	17(32.1)	3.00±0.56	1.92(.157)	3.77±0.72	1.30(.281)	3.90± 0.76	0.02(.976)
	3.5-4.0	26(49.1)	2.73±0.57		3.80± 0.53		3.94± 0.60	
	4.0<	10(18.9)	2.53± 0.88		4.12± 0.45		3.96± 0.68	
English proficiency	very low <sup>a</sup>	7(13.2)	2.58±0.95	0.79(.540)	4.09±0.51	0.89(.479)	4.33±0.62	2.65(.045) d<e<a
	low <sup>b</sup>	8(15.1)	2.69± 0.77		3.68± 0.76		3.63± 0.46	
	moderate <sup>c</sup>	23(43.4)	2.74± 0.52		3.86± 0.56		3.98± 0.60	
	high <sup>d</sup>	8(15.1)	2.85± 0.54		3.64± 0.63		3.48± 0.83	
	very high <sup>e</sup>	7(13.2)	3.14± 0.68		4.05± 0.53		4.22± 0.57	
Number of foreign visit experiences	0	7(13.2)	2.40±0.77	1.31(.279)	3.93±0.61	0.42(.791)	3.96±0.63	0.32(.863)
	1-2	11(20.8)	2.75± 0.62		3.75± 0.80		3.93± 0.75	
	3-4	15(28.3)	2.69±0.51		3.76±0.67		3.80± 0.74	
	5-6	13(24.5)	2.97 ±0.77		4.01± 0.34		4.09± 0.66	
	7 <	7(13.2)	3.05 ±0.44		3.87±0.49		3.87± 0.44	

GPA:Grade Point Average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나.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라.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18명(34.0%), 3학년 17명(32.1%) 순이었으며, 학점은 3.5이상-4.0 미만이 26명(49.1%), 영어 능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23명(43.4%)로 가장 많았다. 외국 방문 경험의 횟수는 3-4번 방문 15명(28.3%), 5-6번 방문 13명(24.5%), 1-2번 방문 11명(20.8%)의 순이었다.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및 핵심역량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및 핵심역량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영어능력과 핵심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65, p=.045$ ). 영어능력이 매우 낮은 군이 높은 군, 매우 높은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높은 군은 높은 군보다 핵심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 3.3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비교를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1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적용 후 대상자는 국제보건간호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은 국제보건간호역량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1 가설은 지지되었다( $t=-6.72, p<.001$ ). 국제보건간호역량은 적용 전

평균  $2.78\pm 0.64$ 점으로 적용 후 평균  $3.54 \pm 0.63$ 점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간호역량 하위 요인 중 국제사회 질병부담( $t=-6.39, p<.001$ ), 이민, 이동, 여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t=-4.98, p<.001$ ), 건강의 사회·환경적 결정인자( $t=-4.17, p<.001$ ), 건강과 보건 의료의 세계화( $t=-7.13, p<.001$ ),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보건 의료( $t=-6.41, p<.001$ ), 인권과 개발 자원으로서의 건강( $t=-5.60, p<.001$ )으로 효과가 이었다.

제2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적용 후 대상자는 셀프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다.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은 셀프리더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2 가설은 지지되었다( $t=-3.30, p=.002$ ).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자기 기대( $t=-2.24, p=.029$ ), 리허설( $t=-2.65, p=.011$ ), 목표 설정( $t=-2.26, p=.028$ ), 건설적 사고( $t=-3.58, p=.001$ )은 효과가 있었으나, 자기 보상( $t=-1.93, p=.060$ ), 자기 비판( $t=-1.70, p=.096$ )은 효과가 없었다.

제3 가설 :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을 적용 후 대상자는 핵심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Table 3. Differences in 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core competency the NCDGP (N=53)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p
	M±SD	M±SD	
<b>Global health nursing competency</b>	2.78±0.64	3.54±0.63	-6.72(p<.001)
Global burden of disease	2.17±0.75	3.13±0.84	-6.39(p<.001)
Immigration, migration, travel affect health	3.00±0.74	3.58±0.62	-4.98(p<.001)
Social/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health	3.14±0.78	3.68±0.59	-4.17(p<.001)
Globalization of health and healthcare	2.68±0.74	3.59±0.64	-7.13(p<.001)
Health care in resource-poor environments	2.70±0.75	3.52±0.74	-6.41(p<.001)
Health as a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resource	2.81±0.70	3.60±0.71	-5.60(p<.001)
<b>Self-leadership</b>	3.85±0.59	4.25±0.65	-3.30(p=.002)
Self expectations	3.84±0.83	4.21±0.85	-2.24(p=.029)
Rehearsal	3.96±0.78	4.37±0.85	-2.65(p=.011)
Goal setting	3.92±0.85	4.30±0.82	-2.26(p=.028)
Self-reward	4.22±0.76	4.51±0.75	-1.93(p=.060)
Self-criticism	3.60±1.09	3.94±1.09	-1.70(p=.096)
Constructive thinking	3.58±0.89	4.18±0.76	-3.58(p=.001)
<b>Core competency</b>	3.93±0.66	4.44±0.62	-4.70(p<.001)
Communication	4.21±0.74	4.54±0.54	-2.88(p=.006)
Humanities knowledge	3.79±0.70	4.42±0.65	-5.20(p<.001)
Nursing service	3.83±0.77	4.37±0.75	-4.30(p<.001)

NCDGP: Nursing Competency Development Global Program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은 핵심역량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3 가설은 지지 되었다( $t=-4.70, p<.001$ ).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 중 의사소통( $t=-2.88, p=.006$ ), 인문 소양( $t=-5.20, p<.001$ ), 간호 서비스( $t=-4.30, p<.001$ )는 효과가 있었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건간호역량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의 요구도에 따라 개발 방향을 정하여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국제보건간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미국 간호사 시험인 NCLEX-RN 준비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 간호사들과의 교류를 온라인 방식(Zoom)을 활용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 방법 및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동안 국제보건간호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의의 중심으로 동영상, PPT 활용, 그룹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포함한 강의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한 바 있다. 교육 적용 기간은 12주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16-2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간호사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의 교류를 경험하게 한 프로그램을 총 3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610분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의식과 토론식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강의를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미국 간호사 교육과정을 강의식으로 제공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21]. 이는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서도 그 내용이 반영되기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session 3에서는 Zoom을 통하여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 감염병이 현재 시점까

지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보건간호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시사하는 동시에 이를 체험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국제적인 교류는 일상화가 되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되었다[22-23].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Zoom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간호사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선행 연구에서도 국제보건간호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이 국제보건간호역량에 해당하는 문화적 역량, 공감, 다문화 수용성이 모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의 국제보건간호역량 정도를 측정된 결과 본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 또한 대상자의 국제보건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셀프리더십은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업무 수행 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뜻하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공 교과목 외에 국제보건 관련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이 향상된 것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개인 특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특성에는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순으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감성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학습 영역에서의 능력 및 역량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소통적 문화 포용력, 창의적 전문성, 헌신적 감수성을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정의한 내용이나 간호역량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문화적 역량, 공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이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5].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역량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간호대학생의 문화 포용력, 창의적 전문성, 헌신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단,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핵심역량인 문화 포용력, 창의적 전문성, 헌신적 감수성은 일개 대학에서 지정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추후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역량개발 글로벌 특강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이 국제보건간호역량, 셀프리더십, 핵심역량을 높이지게 했는지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2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snjc2022-006)

## REFERENCES

- [1] M. Lee. (2012). Development of the Reading Guidance Course for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79-102. DOI: 10.4275/KSLIS.2012.46.3.079
- [2] S. R. Nam & M. J. Na. (2014). A Cas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y Model in Korean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3), 285-315.
- [3] CH. K. Chae. (2012). Establish Core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 2(1), 5-20.
- [4] C. Y. Kim. (2013). Responsibility and Basis of International Health Care.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11(2), 8-13.
- [5]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10). *Vision for the Future of Nursing*. Geneva: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Online) <http://www.icn.ch/about-cn/icns-vision-for-the-future-of-nursing>.
- [6] S. Y. Hwang, J. S Kim, H. M. Ahn & S. J. Kang. (2015). Development and Effect of a Global Health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6(3), 209-220. DOI: 10.12799/jkachn.2015.26.3.209
- [7] D. H. Lee. (2016).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8] C. C. Manz & H. P. Jr. Sims. (1989).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NJ: Prentice-Hall.
- [9] Y. S. Song. (2011). Exploration on Required Competencies for Self-leadership in Large Korean Enterpris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3(3), 51-74.
- [10] Ae Hwa Lee, & Myung Sook Choi. (2014).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n the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and diagnosis too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0(4), 561-588.
- [11] G. P. Cho., H. J. Ju., J. A. Choi. & H. W. Bang.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re competency diagnostic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55, 259-279.
- [12] J. S. Kim, Y. Chung, Y. Jang. (2017). Effects of a Global Leadershi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1637-1654
- [13] L. Wilson, D. C. Harper, I. Tami-Maury, R. Zarate, S. Salas, J., Farley., et al. (2012) Global health competencies for nurses in the America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8(4), 213-222.
- [14] C. Manz.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15] H. S. Kim.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dissert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 [16] H. I. C. Chung, S. Y. Han, & S. H. Seo. (2017).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4), 406-15.  
DOI: 10.11111/jkana.2017.23.4.406
- [17] G. C. K. Lee., Y. S. Park., H. Y. Lee., & K. J. Lee.(2015).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337-346.  
DOI: 10.14400/JDC.2015.13.12.337
- [18] J. S. La. & Y. H. Cho. (2020). Effects of a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y, and cultural nurs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23-38.  
DOI: 10.22251/jlcci.2020.20.14.23
- [19] S. K. Park., S. K. Jeong., & H. S. Kim. (2018). The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2695-2710.
- [20] M. J. Chae., J. I. Kim. & J. H. Lee. (2015). Effects of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73-381.  
DOI: 10.5977/jkasne.2015.21.3.373
- [21] S. Gillson, & N. Cherian. (2019). The importance of teaching cultural diversity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26(3), 85-88.
- [22] K. W. Kim., H. H. Seo, J. S. Lee., N. Y. Kim. & J. W. Oak. (2020) Analysis of domestic education trends after COVID-19: focusing on non-face-to-face education.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9(4), 371-390.
- [23] E. H. Choi., J. Y. Kim. & S. B. Kim. (2022). Application of an online global nursing competency promoting program: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7(1), 11-23.
- [24] K. H. Yu., H. Y. Park., & K. S. Jang. (2018). Factors related to self-leadership of Korean Clinical Nur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5), 410-422.
- [25] S. A. Park. & H. Y. Kim. (2022). Effect of a Global khealth competency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Global Health Nursing*, 12(1), 23-35.  
DOI: 10.35144/ghn.2022.12.1.23

### 홍은희(Eunhee Ho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서울여자간호대학
- 1997년 8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 국제보건 스트레스, 메타버스  
• E-Mail : ehhong@snjc.ac.kr

### 서은주(Eunju Seo)

[종신회원]



- 200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학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환자안전, 스트레스, 간호교육  
• E-Mail : eunjuseo@pcu.ac.kr